

국제산업보건동향



미국

건강증진위원회(WELCOA),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결과 및 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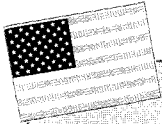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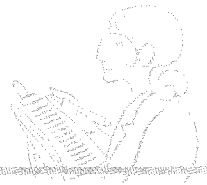
사업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건강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근로자가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 연간 건강관리 비용은 2.4조 달러(원화 약 2,400조원, 2008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건강관리 비용 감소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 건강증진위원회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조사 결과

- 2008년에 77%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은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제공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습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장의 건강관리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건강상태의 50%는 생활습관에 따른 결과이며, 75%의 건강관리 비용은 생활습관 변경으로 질병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관리 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과 툴을 제공하고 있다.

■ 건강증진프로그램 모범사례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사전조사-모집단 파악(건강위험, 건강상태, 변화를 위한 준비상태 이해)
- 2단계 :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리더십, 지원 및 참여
- 3단계 : 생활습관·행동변화에 초점을 맞춘 건강증진프로그램 설계
- 4단계 : 건강단계와 개인별 프로그램 결정을 위한 데이터 적용
- 5단계 : 적극적 의사소통과 인센티브 부여 방식 개발
- 6단계 : 전체와 조화될 수 있는 개인별 프로그램 설계
- 7단계 : 건강전시회, 건강세미나, 운동시설, 영양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유지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문화 조성
- 8단계 :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측정, 효과분석 및 기업의 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운영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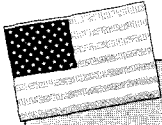
■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개인 3명 중 2명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가 넘는 사람들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하여 본인이 추가부담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46%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각자의 행동양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WELCOA : Wellness Council of America

〈출처〉 <http://www.welcoa.org/>

국제산업보건동향



미국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발표자료〉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경마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경마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마산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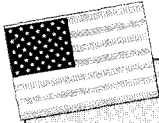
■ 미국 경마산업 근로자의 주요 재해조사 개요

- 경마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의 데이터베이스(NEISS-Work)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표준 경마산업에서 14,200여건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상지부위의 상해가 전체의 3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기수협회(The Jockey's Guild of America)에 의하면 1950년대-1980년대에 100명의 기수가 사망하였으며, 경마산업 근로자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로 오전 시간 중에 말 조련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경마산업과 관련하여 1993년부터 1996년 동안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6,546건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사망자 수는 3명이며, 상해사고의 44%가 기수 낙마로 머리, 목, 얼굴(상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수 706명의 상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총 1,757건의 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 미국 NIOSH의 경마산업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 남성 8,700명(61%), 여성 5,900명(39%)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5세-44세에서 상해가 가장 많이(33%)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부위는 상지(어깨, 팔, 손목, 손 등)가 가장 많은 33%를 차지하였으며, 상해자의 91%는 치료 후 퇴원하였지만 9%는 타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4월-9월 사이에 전체 사고의 67%가 발생하였다.
- 상해 현황 요약

연령	재해자수	비율	상해부위	재해자수	비율
계	14,200명	100%	계	14,200명	100%
25세 미만	3,000명	21%	상 지	4,700명	33%
25 ~ 34세	3,300명	23%	하 지	3,600명	25%
35 ~ 44세	4,600명	33%	머리, 목	3,200명	23%
45세 이상	3,300명	23%	복부, 몸통	2,600명	18%



미국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중대재해 센서스(CFOI) 자료분석 결과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중대재해센서스(CFOI)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2-2006년 동안 경주마 육성 및 표준 경마산업에서 79명이 사망하여 평균 강도율 5.6을 기록하고 있다. 79명의 사망자 중에서 트랙 지면에 충돌이 28명(48%), 실제 경마 출전 중 사망이 18명(23%). 또한 낙마로 38명(49%), 말에 밟히거나 차여 17명(2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각 주별 경마 관련 개인용 보호구 관련 기준(참고)

보호구 종류	지역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일리노이	켄터키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서버저지니아
안전모									
일반적인 안전모	○								
승인된 제품		○	○		○	○	○	○	○
ASTM F1163-04a				○				○	○
안전모 필수 착용 보직									
기수		○	○						○
견습 기수, 마필관리사			○						
트랙관리원	○			○	○	○	○	○	
안전모 필수 착용 시기									
구체화 되지 않음		○		○					
결주, 훈련 시	○		○		○	○	○		○
시설관리 시 모든 인원								○	
안전조끼 종류									
인증 되지 않은 제품							○		
이사회 승인된 제품		○							
BETA (평가 5)			○	○	○	○			○
BETA (평가 1), ASTM F1937-04									
BETA (평가 5), 뒷개가 부착된 제품	○								
안전조끼 필수 착용 보직									
구체화 되지 않음		○		○			○		
기수	○		○		○	○			○
견습 기수, 기수						○			
마필관리사, 훈련 조교	○		○		○				
모든 마필관리인								○	
안전조끼 필수 착용 시기									
구체화 되지 않음		○					○	○	
경주 중	○		○	○	○	○			○
조교 중	○		○	○	○				
조교, 준비운동 중, 행진 시	○			○	○				

※ 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BL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CFOI :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 NEISS-Work :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출처〉 <http://www.cdc.gov/niosh/docs/2009-128/>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